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 종교차별 예방교육 권고

문체부, 종평위에 회신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의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전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밝혔다.

종평위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사안의 엄중성에 비해 다소 조치가 미흡하긴 하지만 앞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이러한 종교자유 침해나 종교편향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종교자유 침해나 종교 편향 등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갖고 대응할 것이며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26일 열린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 자문회의 결과를 종평위에 회신해 왔다. 문체부는 종평위에 보낸 회신에서 "문건의 작성행위만으로 공직자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문건을 외부로 유출함으로서 종교편향과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며 전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기획/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회고와 전망 ③ 향후과제

갈등분열…선거후유증 극복 '현안'

종책토론회 필요성
직선제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등
공감대 형성 '성과'

논공행상보다
능력위주 인선으로
논란 잠재우고
화합 이끌어내야

자승스님이 90%의 득표율로 당선된 지난 33대 총무원장 선거가 사실상 추대였다면, 이번 선거는 8년 만에 치러진 경선이었다. 선거를 지켜보는 종단 내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유력 후보들이 종책 선거를 표방하고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선거에 임할 것을 약속했지만 과열혼탁 양상을 띠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종단은 세속과 다른 수행자들의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 폐단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드러났다. 교구선거인단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면서 종책 선거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종단의 선거문화 속에서 변화의 노력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후보자간 종책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던 시도가 대표적이다. 종책토론회는 종책 선거의 시작과 마찬가지다. 선거인단들이 후보자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공약을 듣고 누구를 지지할지 선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가단체가 유력후보들의 대변인을 초청해 종책토론회를 개최한 건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비록 종책토론회 날짜와 방식을 놓고 의견조율에 실패했지만, 후보자들 모두 종책 선거와 토론회의 필요성에 동의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시도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종책토론회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결국 이런 노력들 덕분에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간 종책토론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도 이끌어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선거법에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 선거인단 240명 등 총 321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1만 4000여 스님 가운데 극히 일부인 셈이다. 간접선거 방식이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후보자였던 총무원장 자승스님 역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종도들의 뜻을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선거가 불가피하다면 좀 더 많은 종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밝혔듯이 직선제 혹은 확장된 간선제 등 선거제도 개편은 34대 집행부의 중요한 숙제다.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서 갈등과 분열은 불가피하다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간 이력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졌다. 또 옛 무량회, 무차회, 백상도량이 참여한 3자 연대는 힘 있는 야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34대 집행부가 선거기간 생겼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화합 여부가 종단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집행부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논공행상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승스님 측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지홍스님은 "34대 집행부는 함께 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며 "계파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함께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동국대 '소셜 인재교육과정' 개설

한국소셜네트워크와 '협약'
경주캠퍼스는 필리핀 개최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참석

동국대에 '창조경제형 글로벌 소셜부문 창의인재육성교육과정'이 개설된다. 동국대 LINC사업단(단장 이의수)은 사단법인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회장 이경옥)와 공동으로 ICT기반 창조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소셜마케팅전문가·빅데이터분석전문가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설하는 협약식을 지난 8일 가졌다.

앞으로 두 기관은 글로벌소셜마케팅전문가와 빅데이터분석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의수 동국대 LINC사업단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SNS전략전문가 양성과 글로벌 소셜부문의 새로운 직업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특화된 전문역량을 보유한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GTEP 사업단(단장 김미정)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3 필리핀 경북도 우수상품전시상담회'에 참가했다. 경상북도와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한인무역협회 마닐라 지회가 공동으로 9월2일부터 10월7일까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동국대를 비롯해 경북지역 중소기업 18곳이 참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GTEP(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사업단은 바이어 리스트 확보, 홍보물 및 홍보배너 설치,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 및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약 5만 페소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의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바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신문 페이스북·트위터는 여러분의 도반…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ibulgyo)
트위터 (twitter.com/ ibulgyo)

박 대통령, 수석 보내 '총무원장 연임' 축하

박근혜 대통령이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사진〉을 통해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인이자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연임 축하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모철민 수석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모 수석은 "제3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불교의 변함없는 기도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10월 15일·17일 종무회의

청화스님 서울 청암사 / 성업스님 서울 양지암 / 광용스님 서울 성림사 / 보경스님 서울 정수사 / 법경스님 창원 화룡사
문수스님 용인 금강사 / 원만스님 제주 평화통일 불사리탑 / 일선스님 창녕 인양사 / 탄무스님 과천 연주암 / 시연스님 대전 송원사
목우스님 영동 보광사 / 태웅스님 천안 성월사 / 노산스님 세종 비암사 / 금룡스님 청양 운장암 / 홍제스님 아산 약사사
도신스님 서산 서광사 / 청안스님 원주 문수사 / 종경스님 서산 관음사 / 진관스님 상주 상락사 / 세관스님 예천 서악사
범해스님 울산 무룡사 / 보성스님 용인 법계선원 / 여해스님 양산 정종사 / 금동스님 곡성 도림사 / 능현스님 보령 지장사

제196회 중앙종회 정기회 집회 공고

종헌 제39조 및 중앙종회법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196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집회일시 _ 불기2557(2013)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회 기 _ 불기2557(2013)년 **11**월 **1**일(금) ~ **15**일(금) (15일간)
▶집회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요안건 _ 1. 종법 제 · 개정의 건
2. 불기2558(201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기타

◆ 의안 접수 기한 : 10월 25일(금)까지 ◆ 종책질의 접수 기한 : 10월 27일(일)까지

※ 의안 및 종책질의는 구비 서류(홈페이지 참조)를 갖추어 위 기한까지 중앙종회사무처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종회의원 스님께서는 가사장삼을 착용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 적